“오월은 문화적 기억일 때 오래 지속된다”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역임 조진태 시인 ‘오월의 감정학’ 펴내

“이제 광주 5·18은 거시적 오월에서 미시적 오월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5·18의 문학화가 필요한 이유죠. 시와 소설을 비롯한 문학은 5·18을 느끼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1980년 5월은 ‘광주만’의 것이지만 ‘광주’의 시공간을 넘어선다. 공동체의 보편 가치를 내재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것으로 제한될 수 없다.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했던 조진태〈사진〉 시인은 이를 “‘광주 사람들만’의 것으로 당파지어 배제하고 묵살하고 싶어 하는 지배집단의 지역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상징화”라고 부연했다.

최근 시인은 오월과 관련한 서평과 시론, 논문 등을 담은 ‘오월의 감정학’(문학들)을 펴냈다. 주요 모티브는 광주 5·18이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오월의 전승은 문화적 기억일 때 오래 지속된다”로 요약된다.

책 발간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지만 쉽게 연결되지 않았다. 그의 시간은 상당 부분 5월의 시간과 맞물려 있었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터라 이즈음이면 타 도시로 출장을 가거나 세미나를 비롯한 행사 참석, 매체 인터뷰 등으로 바빴다.

“지금은 감성을 건드리는 시와 소설 작품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무엇보다 이타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대를 이은 관습과 문화적 감성은 공동체의 도덕규범과도 맞물려 있기도 하구요.”

그가 책을 펴낸 것은 오월의 내면을 읽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시의 감성과 소설의 스토리를 토대로 오월을 성찰하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는 것이다. 책에는 ‘시로 읽는 5월의 절대공동체’, ‘오월 기억투쟁, 슬픔의 힘’, ‘더 많이 오월을 감각하는 일, 사랑과 공감’, ‘도래할 절대공동체’ 등의 글이 수록돼 있다.

시인이 5·18을 화두로 삼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학생 때 겪은 5·18 때문이었다. 조선대 국문과에 재학중이었던 시절, 그는 당시 횃불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후 “시민군들과 함께 총을 들고 싸우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다고 했다. 어쩌면 그것은 당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느껴야 했던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도 같은 감정이었을 터다.

“5·18 이후 ‘일어서라 꽃들아’라는 시위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구속을 당했습니다. 3개월 정도 갇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인생사의 대전환을 맞았던 것 같아요.”

이후 그는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80년대에는 들불야학 관계자와 함께 활동을 했으며 진보정당을 만드는 데도 참여했다. 틈틈이 시도 썼다. 문학을 통해 세상을 바꿔보자는 나름의 의식을 견지했다. 이승철·임동확·박선욱 시인 등 젊은 시인들과 교류하고 함께 시 공부를 했다. 그러다 1984년 시 무크지 ‘민중시’1집에 ‘어머니’ 등을 발표하며 등단했으며 ‘광주 젊은 벗들’을 결성해 시 낭송 운동과 시화전을 열기도 했다.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맡고 있기에 그는 누구보다 5·18에 대한 책무가 클 것 같다. “5월 정신도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에서 깊은 고민의 단상이 묻어난다. “오월의 현장은 여전히 ‘무한 텍스트’이므로” 그 해석 또한 넓고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환의 매개 역할은 문화가 담당해야 하며 정신 가치는 대동정신을 더욱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동민주주의를 화두로 50주년까지는 그러한 가치가 확장 심화됐으면 해요. 물론 앞으로 5·18이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보편적 가치, 대동정신을 토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해요.”

한편 조 시인은 지금까지 시집 ‘다시 새벽길’, ‘희망은 왔다’를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 ‘둥글고 둥글게’
2 ‘좋은빛 좋은공기’
3 ‘광주항쟁의 유산’

‘광주항쟁의 유산’ … ‘좋은 빛, 좋은 공기’

광주독립영화관, 19일 5·18 42주년 특별전…무료 상영

광주독립영화관은 19일 ‘5·18 민중항쟁 42주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은 영화를 통해 5·18을 되새기고, 우리를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다양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가장 먼저 상영되는 영화로는 임흥순 감독의 ‘좋은 빛, 좋은 공기’(낮 12시)다. 다큐멘터리 ‘위로공단’으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감독의 ‘좋은 빛, 좋은 공기’는 5월 18일을 기억하는 이들의 기록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남겨진 이들의 증언을 통해 국가 권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 죽음 등이 오늘날 우리 일상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탐구하는 영화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북의 민주화 열망을 담은 다큐멘터리, 신혜빈·박화연 감독의 ‘석류꽃 필 때쯤’과 박종익 감독의 ‘그날, 고등학생의 증언’이 오후 2시 10분 상영된다.

3시 40분부터는 신은정 감독의 ‘광주항쟁의 유산’, 구담 감독의 ‘오월의 만다라’, 박정운 감독의 ‘오발탄’ 등 세편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음악감독으로 유명한 정재일이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장민승 감독의 ‘둥글고 둥글게(Round and Around)’가 5시 30분부터 상영된다.

‘둥글고 둥글게’는 아카이브 자료를 기반으로 영상과 전시의 융복합을 시도한 새로운 시청각 프로젝트(Audio-Visual Project)다. 지난 2020년 5·18민중항쟁 40주년을 맞이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현대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기획, 제작됐다.

영화와 연극,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활동을 하며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정재일 음악감독은 본 프로젝트에서 시편에 기반해 작곡한 라틴어 합창곡을 선보인다. 영화는 1980년 5월의 광주와 더불어 1980년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를 더해 준다.

이번 특별전 상영작 관람은 모두 무료이며, 현장에서 발권 후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www.gift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자연과 시간의 흐름 ‘너에게로 가는 길’

롯데갤러리 광주점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는 오수경 작가.

화사한 꽃과 푸른 하늘, 시원한 바다풍경이 펼쳐지는 갤러리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이 오월에 잘 어울리는 전시회에 초대받은 기분이 든다. 초록과 붉은 기운이 어우러진 작품 ‘사과나무’ 아래 서면 상큼한 기운이 전해지는 듯 하고, 비파 나무 사이로 보일듯 말듯 모습을 드러내는 푸른 하늘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서양화가 오수경 작가 개인전 ‘우서일절(偶書一絶)-너에게로 가는 길’이 오는 6월28일까지 롯데갤러리 광주점에서 열린다. 전시 제목 ‘우서일절’은 고려시대 승려 충지의 시에서 따온 말로 ‘뜻하지 않게 자신을 찾아온 시 한 구절’을 말한다. 미국 텍사스에 머물며 ‘우연처럼, 때론 필연처럼’ 완성해 나간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다.

그가 전시회를 열 때면 꼭 걸어두는 그림이 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그려나간 2001년 작품 ‘범부채’다. 자신의 회화 인생의 출발점이라는 생각,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신작을 발표할 때도 이 작품만은 꼭 내놓는다. 식물도감, 조류도감 등을 곁에 두고 보던 아버지 덕에, 또 집 꽃밭에서 만난 온갖 꽃들 덕에 그는 나무와 꽃과 자연을 즐겨 그리는 작가가 됐다. 그의 할아버지는 한국 최초의 인상주의 화가 오지호 화백, 아버지는 오방정색의 작가 오승윤 화백이다.

넘을 수 없는 두 개의 큰 산을 앞에 두고 방황도 하고, 고민도 많았던 그는 결국 “나의 유산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을 찾는 데” 몰두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겸손하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꾸 뒤로 숨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정체성도 꼬여버리구요. 결국 내 유전자에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화풍이나 재료를 자연스레 연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며 정체성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에게 ‘전환점’이다. 남편 직장을 따라 떠난 미국 텍사스에서 5년간 머물며 생각도, 그림도 큰 변화를 겪었다. 철저하게 혼자 있는 시간이었고, 그 고독 속에서 작가는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찾아나갔다. “외롭지만, 또 편안한 시간”이었고, “마음껏 그림을 그린 시간”이기도 했다. 산책하기 좋은 오스틴의 풍경이 그를 자연으로 이끌었고, 거기서 받아들인 꽃과 나무, 하늘, 사물이 어우러져지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갔다.

“우연이 만들어준 미국에서의 5년간의 시간이 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준 것 같아요. 가기 전에는 ‘화가의 길’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어쩌면 더 이상 그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들도 있었죠. 텍사스는 산이 없는 지형인데, 유독 하늘이 맑아 하늘을 많이 쳐다보게 됐어요. 하늘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고, 어느날 관상용 사과나무와 비파나무 가지 사이로 조각조각 비치는 하늘을 본 순간 감이 왔습니다. 타국에서 본 비파나무와 연꽃, 사과나무 등은 고향집에서 제가 봐왔던 것들이더군요.”

그의 그림의 소재는 ‘꽃’과 ‘풍경’이다. 나무와 열매, 파란 하늘이 어우러진 배경에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 했고, 추상과 구상이 어우러지며 작품은 풍성해졌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달라지는 하늘과 꽃들은 ‘뻔한 색’이 아닌 다양한 색채로 표현하려 했고, 때론 두터운 유화느낌을 주기보다는 가볍고 산뜻한 수채화 느낌으로 작업했다. 소재를 단순화시키고 덜어내며 색다른 조형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도 즐거웠다.

채우고 덜어내는 과정은 무리지어 있는 물고기들을 표현한 ‘바다’와 한 마리의 물고기에 집중한 ‘수초’ 작품을 통해 대비해 볼 수 있으며 마치 ‘일기처럼’ 그려나간 정물화 등 소품들에서도 작가의 탄탄한 내공을 만날 수 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건 슬플 때 위안이 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이 이번에 작업하며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보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저했던 과감하고 화려한 색채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이화여대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오 작가는 지금까지 7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이서회원, 그룹터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국윤미술관 ‘잇다’

28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이 오는 28일부터 10월까지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문화로 잇는 날’을 운영한다.

‘잇다’를 주제로 국윤미술관 소장품에서 모티브를 얻어 자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컬러샌드를 통해 미술관의 소장품과 참여자를 ‘잇고’, 참여자와 가족, 자신, 주변을 ‘잇는’ 대상특화 문화예술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미술관 소장품 중 국중효 작가의 작품을 선정, 작품 속 ‘아낙네’에 자시늘 대입시켜 생각해 보고, 색 모래를 이용한 샌드아트를 제작해 보게된다. 특히 이번에는 2021년 신규 콘텐츠 개발·제작한 국 작가의 작품 아카이브 영상을교육 자료로 활용, 미술관과 작가의 작품 세계도 알릴 예정이다.

28일 운영되는 첫 번째 프로그램 ‘예술로 우리 가족 잇기’는 가족 대상 온라인 운영 프로그램이다. 국윤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샌드아트를 통해 우리 가족의 아낙네를 제작하는 것으로 참여 신청시 키트발송과 자체 제작한 교육영상을 통해 강의가 진행된다.

대면프로그램은 주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며 ▲나를 잊지 말고, 잇기(9월 3일) ▲너랑 나를 잇기(10월 1일)가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며 회차별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문의 062-232-733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